

A Very Good Question: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uly 6, 2023

Aloha MPC ‘Ohana,

It’s July 6,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I was recently asked a super good question by one of our young people. The question was, “Can you believe in science and still believe in the Bible too?”

A recent Gallup poll showed that many young Americans under age 25 view Christianity with growing skepticism because they are under the impression that one cannot simultaneously embrace the truth of science and the truth of scripture too. So the question is an important one.

I was raised in a family where both of my parents were believing Christians *and* public school science teachers. And so I not only think that one can *believe* in science and in the Bible too. It’s been my experience that one can *love* both science and scripture.

And in saying that, I’m not alone. It is, in fact, the position that has been taken by the keenest Christian minds down through the ages, from St. Augustine in the 5<sup>th</sup> century to the current NIH Director Francis Collins, who is a born again Christian as well as being a world-renowned scientist.

I recently purchased a copy of Dr. Collins’ book *The Language of God: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at the Logos Bookstore in town. In that book, Dr. Collins states his own position very clearly, writing:

“In this modern era of cosmology, evolution, and the human genome, is there still the possibility of a richly satisfying harmony between the scientific and spiritual worldviews? I answer with a resounding yes! In my view, there is no conflict in being a rigorous scientist and a person who believes in a God who takes a personal interest in each one of us. Science’s domain is to explore nature. God’s domain is in the spiritual world, a realm not possible to explore with the tools and language of science. It must be examined with the heart, the mind, and the soul.”

There’s a lot to digest in that quote. But one of the things that stands out to me is Dr. Collins’ use of the expression the “language of science.” Because just as science has a “language” which it speaks, so too does the Bible.

But the Bible’s “language” is different from the “language” of science. For one thing, the kind of language which the Bible uses is very down to earth. It’s not technical. It’s the kind of language which people used thousands of years ago (and which people often still use now) in everyday conversation.

Here’s an example. Ecclesiastes 1:5 says, “The sun rises, and the sun goes down; and it hastens to the place where it rises.” We 21<sup>st</sup> century people use similar language every day ourselves. We talk about the sun rising and setting,

about it moving across the sky every day, etc. And we all understand what that means.

But, from a purely scientific point of view, none of that is actually the case. The sun does *not* rise or set or move across the sky at all. No, technically, it's the earth that *moves*, not the sun. Because the earth rotates on its axis every 24 hours, creating the illusion of the sun rising in the morning, moving across the sky throughout the day, and then setting in the evening.

So, when Ecclesiastes 1:5 says, "The sun rises, and the sun goes down; and it hastens to the place where it rises," is it saying that, as Christians, we cannot believe what science tells us about the rotation of the earth on its axis? Does what Ecclesiastes 1:5 says set up some sort of irreconcilable conflict between science versus the Bible, in other words?

No. *Because Ecclesiastes 1:5 is not trying to talk in the language of science.* It's talking like down to earth, ordinary people do every single day (including many astronomers, by the way, in the course of routine conversation).

Which is just the point. The "language" of the Bible is inspired by God, yes, absolutely. But the Holy Spirit inspired the writers of scripture to communicate using the "language" that regular people routinely use in conversation – *not* the technical "language" of a discipline like modern science.

Incidentally, this is also why we don't see anything in Genesis 1 about quantum physics, general relativity, gravity, plate tectonics, photosynthesis, microbiology, etc., etc. Does God know about all of those sciencey things? Of course God does! (More than we ever will, in fact).

But in inspiring Genesis 1, the Holy Spirit's goal was not to present a scientific account of the origins of the universe. Instead, the Holy Spirit was communicating spiritual truths about God and His good creation in the kind of "language" which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use every day in conversation.

So by reading Genesis 1 we can learn a lot of really important spiritual truths about God, our fellow human beings, and our responsibility to care for creation. Because that's what God's Spirit was and is trying to tell us about in Genesis (among other things).

But that doesn't mean we can't also study science and learn from it too. We can! And I believe we should. Because when God created *homo sapiens* in His image, I believe God gave us big brains fully intending for us to use them to learn all that we can about everything, including science.

Me ke aloha,  
Pastor Ron

아주 좋은 질문: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오전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7월 6일,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중 한 명으로부터 아주 좋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과학을 믿으면서 성경도 믿을 수 있습니까?”였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과학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를 동시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회의적인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모두 기독교인을 \_믿으며\_ 공립학교 과학 교사였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과학과 성경도 \_믿을\_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경전을 모두 \_사랑할\_ 수 있다는 것이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5^ 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현 NIH 원장인 프란시스 콜린스에 이르기까지 가장 예리한 기독교인들이 취한 입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나는 최근 시대에 있는 로고스 서점에서 콜린스 박사의 책 \_The Language of God: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_를 구입했습니다.

그 책에서 Dr. Collins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주론, 진화론, 인간 게놈의 현대 시대에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이 만족스럽게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엄격한 과학자가 되는 것과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 관심을 갖는 신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갈 등이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은 자연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과학의 도구와 언어로 탐구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인용문에는 소화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콜린스 박사가 ”과학의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언어”가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과학의 “언어”와 다릅니다.

우선, 성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기술적이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했던(그리고 오늘날에도 종종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전도서 1:5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떠오르는 곳으로 빨리 가느니라.”

우리 21 ^세기^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매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대해, 태양이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은 뜨거나 지거나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 \_하지 않습니다\_ .

아니요, 기술적으로 \_움직이는\_ 것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지구는 24시간마다 자전하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떠서 하루 종일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한 다음 저녁에 지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며 그것이 떠오르는 곳으로 달려가느니라.” 이것은 기독교인인 우리가 과학이 지구 자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서 1:5에서 말하는 내용은 과학과 성경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_ . 전도서 1:5은 과학의 언어로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_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많은 천문학자들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그게 요점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현대 과학과 같은 분야의 전문적인 ”언어”가 \_아니라\_ 일반 사람들이 대화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도록 경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부수적으로, 이것은 양자 물리학,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 판 기술, 광합성, 미생물학 등에 관해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것보다 더 많이).

그러나 영감을 주는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의 목표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화에서 매일 사용하는 종류의 ”언어”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창조에 관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료 인간, 피조물을 돌보아야 할 우리의 책임에 관한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_호모 사피엔스를\_ 창조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데 사용하도록 큰 두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알로하,

론 목사